

## ‘교회 행정’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만나는 ‘규례’, ‘율법’, ‘율례’, ‘계명’(느 9:13)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개혁교회를 꿈꾸며 설계했던 내게 새롭게 생긴 직업병(?)이다. 우리교회 정관, 규정, 지침이 이들과 오버랩되고, 어느새 내가 사랑과 계명의 균형을 잃은 못난이 율법주의자가 된 것인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율법(계명)과 헌법(규정), 그 차이와 가치

느헤미야 9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그리고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종교적 생활과 도덕적 행동을 지도하고 강조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침과 명령을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율법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니라 율법 조문의 문자적 해석과 이에 따른 실천에 집착하는 것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목적이나 정신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주장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규례’, ‘율법’, ‘율례’,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인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하며(요일 2:4),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롬 3:31).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 사랑과 계명의 균형을 통해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국가가 정한 헌법과 법률이나 조직이나 공동체가 정한 정관과 규정·지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구성원들이 절차를 따라 함께 정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법이든 정당이나 기업이 정한 정관이나 규정은 그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에 이를 위반한 구성원들에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어 조직을 지키며 발전한다.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율례·계명**’과는 다르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약속한 ‘**헌법·정관·규정**’을 위반하면, 우리가 세우고 맡긴 담당자들에게 의해 바로 잡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들을 담아 놓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든, 어른이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소상하게 제시하며 처벌 조항들을 두고 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은 백성들의 집합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로 신인(神人) 관계라는 특성을 갖는 인간들의 공동체이자 조직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율례와 인간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정한 정관·규정의 의미와 가치를 혼동하곤 한다.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때론 손발이 되고 때론 땀과 눈물이 되어 하나님

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로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역을 함께 찾고 질서 있게 실현하는 과정과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곧 교회 행정이다. 이런 교회 행정의 바탕이 정관이고 규정과 지침이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장치이다.

### ‘교회 행정’,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 교인들은 교회 행정을 배운 적이 없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크든 작든 교회 일을 맡기 두려워하고, 전문사역자나 장로들에게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습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환경이 된 중요한 이유이고, 종교개혁을 가져온 대표적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됨을 고백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벧전 2:9)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져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마치 손이 할 일을 발에게 미루는 것처럼, 지체로서 맡아야 할 나의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살림, 교회 행정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하는 교인들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다행히 우리교회는 누가,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아놓은 ‘예품규정·편람집’이 있어 행정 문외한들이 비빌 언덕을 제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신 말씀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으니, 좀 서툴더라도 용기를 내어 배우고 도전하는 게 ‘말씀을 삶으로 써 가는’ 방법이 아닐까?

스스로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산봉우리를 정복해 본 사람만이 그때 밀려오는 행복감을 아는 것처럼, 힘들게 얻은 행복이 더 큰 기쁨을 주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행복이 오기를 고대하지만, 행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 노력해서 얻는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행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자신의 바람과 욕구에 반대되는 규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용기 있게 도전하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살아낼 때 변별력을 갖는 교인으로,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지을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